일회용품과 작별

합성섬유와 작별

편리와의 작별

미세플라스틱과인

티끌 같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와 땅, 하늘에 퍼져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쌓여 큰 피해를 입힙니다. 편리를 위한 소비와 작별하고 불편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뿌린 미세플라스틱과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거둬들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6)



일회용품과 작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페트병, 비닐봉투와 작별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하기



합성섬유와 작별

천연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세탁기에 필터 사용하며 낮은 온도로 짧은 시간 세탁하기



편리와의 작별

천연수세미와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과 담배꽁초 플로깅하기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200여 교회가 함께합니다.

(광주기윤실,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부산기윤실, 인천기윤실, 익산기윤실, 전남기윤실, 전주기윤실, 진주기윤실, 정읍기윤실, 청주기윤실, LA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기윤실 후원하기